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4~9/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유식,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혜	요코야마 코이츠/안환기	민족사
4	팔천송반야경(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전순환	불광출판사	9	청송골 수행기(교조소에서 온 편지)	편집부	지혜의눈
5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조계종출판사	10	도해 람림, 깨달음의 길을 말하다	쟈써/석혜능	부다가야

"원력,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 하는 것"



원력의 화신

유철주 지음/상상출판 펴냄/1만 5500원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우 스님, 보각 스님, 정념 스님, 능혜 스님, 덕문 스님, 경암 스님, 무각 스님, 선업 스님, 일묵 스님, 계호 스님, 명법 스님, 호당 정사 · 정진심 전수, 김영동 학장, 김성림 회장, 이기흥 회장, 이해모 위원장

부처님 가르침 전한 수행자 16인 원력 소개

"금강석 보다 단단한 결심 없으면 성취 못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력이란 불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갖는 내적인 결심과 그에 따르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원 · 서원(誓願) · 행원(行願) 등으로도 표현하지만, 내면적인 원은 결코 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과 힘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도를 닦는 보살은 반드시 원을 세워야 하고, 그 원을 성취해 성불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살이 인위(因位)에서 세우는 원을 본원(本願) 또는 인원(因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살의 기본적 원은 부처가 되고자 맹세하는 원작불심(願作佛心)과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도중생원(度衆生願)으로 대별된다. 이를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원(下化衆生願)이라고 한다. 불교의 거의 대부분의 부처와 보살은 그들의 본원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불교가 채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장비구(法藏比丘)가 극락정토를 건립키 위해 세운 48대원(大願)과 약사여래의 12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을 들 수 있다.

〈원력의 화신〉을 쓴 유철주 작가는 "원력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한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석보다 단단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어 "이번 책에 모신 수행자들의 원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이번 생에 반드시 대중들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과 실천 의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뤄가는 과정 못지 않았다. 각자 분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실천. 오늘도 '원력'을 가슴에 새기고 새긴다"며 집필 소감을 밝혔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책을 써온 지 10여 년 만에 8번째 책이 나왔다. 쉬엄쉬엄해도 될 법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한 수행자들을 사람들에게 '자랑' 하고 싶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원로 선지식(善知識)들의 수행 이야기를 담은 〈산승불회〉를 쓸 때만해도 이렇게 많은 책을 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산승불회〉 한 권만으로도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권, 한 권 책을 펴낼 때마다 훌륭한 수행자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로지 대중들에게 그분들의 삶과 노력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고지 한 페이지씩 채워 나갔다. 아직도 책으로 모시지 못한 많은 분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는 저자 유철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연 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한다.

이번 책의 주제는 원력(願力)이다. 부처님 말씀이나 가르침을 살펴보면 원력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법회를 마치면서 다함께 부르는 다짐의 노래인 사홍서원은 1)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2)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3)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4)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으로 구성돼 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원력에 관한 4가지 서원도 비슷하다. 첫째,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결정코 그를 해탈케 하겠노라. 둘째, 부처님의 바른 정법이나 정견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반의 묘심을 기필코 알게 하겠노라. 셋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결정코 행복하게 하겠노라. 넷째, 열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열반에 이르도록 하겠노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원력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이번 책에 모신 수행자들은 이번 생에 반드시 대중들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과 실천의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뤄가는 과정 못지 않았다. 각자의 분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고 저자는 책 속에서 피력한다.

책 속에서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실천, 그 '원력'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시는… 마음에 번저 가는 시



자연 관조와 명상, 시가 되다

백원기 지음/운주사 펴냄/1만 8천원

한국 근현대 시인들 중에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면서 빛나는 서정 세계를 일궈낸 작가' 들을 가려내 그들의 시세계를 농밀히 들여다보고 읽어낸 평론집이다. 저자는 작가 21명의 대표적인 시들을 소개하면서, 그 시들이 품고 있는 의미와 속내에 치밀하게 천착해, 이를 통해 문자 너머 시인의 내면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광수, 정지용, 박종화, 신석초, 정완영, 김상옥, 조지훈, 조병화, 신달자, 조창환, 이상국, 문정희, 최동호, 황지우, 최승호, 나병춘, 공광규, 이정록, 이홍섭, 장석남, 김선우 등등.

이처럼, 한국문학사에서 나름대로 발자취를 남긴 작고 문인들과 현재 시적 성취를 이루어가는 현역 원로 및 중진, 그리고 신진 시인 21명을 대상으로, 저자는 그들의 작품 속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신의 긴장과 폭력, 분단과 전쟁, 가난과 슬픔, 생태위기와 생명연대의식, 그리고 비움과 버림의 세계관' 과 맞닿은 다양한 시학을 담론으로 삼아, 각각의 시들이 품고 있는 내밀한 의미와 더불어 시인들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추적한다.

사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격동과 변화, 변혁의 소용돌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물론이고 삼라만상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존재인 시인은 응당 그런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내고 성찰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도 했다.

저자의 말처럼,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그것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대립한다. 때문에 근원적인 삶에 대한 의문을 우주에 던지고 그곳으로부터 답을 찾으려 하는 시인들은 자연 속을 거닐며 자연과 스스럼없이 교감하고, 마음에 이는 파문을 주시한다. 그래서 자연을 관조하는 일은 곧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상이다.

생명경시가 만연한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상실과 불안감, 고독과 소외감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슴을 적시며 영혼의 울림을 주는 '자연과 명상' 의 시는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흐렸던 정신을 맑게 해준다. 아픈 영혼을 힐링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 책이 던져 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이 책에 실린 시인들은 자연 친연성을 바탕으로 한 존재의 상호연기에 대한 깊은 천착을 드러내 보이는 시세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다분히 불교의 화엄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면서 빛나는 서정 세계를 일궈낸 사유의 시들은 세상에 붙지 말고, 세상을 탈 줄 아는 반야왕거미의 지혜를 일러줄 뿐만 아니라 배려와 연민, 그리고 공감으로 끊임없는 명상과 치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바로 이 책에 실린 시들이 보여주는 치유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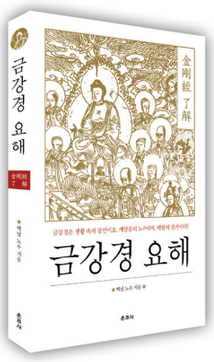
자연 관조, 자신 들여다 보는 명상

사유의 시는 치유의 힘도 보여줘

모든 존재는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물감처럼 번지며 또 다른 하나를 완성해 나간다. 여름이 번져 가을이 되고, 꽃이 번져 열매를 맺고, 저녁이 번져 밤이 되고, 나는 네게로 번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뀜이 아니라 번짐이다. 결국 번진다는 것은 경계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더 큰 하나로 전이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주고받음의 상쇄에 의해서 경이롭게 열리고 닫히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좋은 시는 마음으로 번져가는 시이고, 마음으로 읽는 시이며, 상생과 공감의 시로 읽히는 것이다. 이 책이 바로 좋은 시, 좋은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구마라집 역 금강경의 온전한 이해!

금강경 요해



각 분마다 그 대의와 맥락을 설명하고,
원문 문장 및 개념에 대해 상세하고 쉽게 풀이하며,
각 분의 마무리에서는 선적 일화를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과거칠불 및 삼십삼조사의 게송과 독송용 금강경 수록!

백납 노우 지음/신국판/336쪽/값 15,000원

중국 선종의 중흥조, 마조 선사의 가르침!



마조어록 역주

각종 선종 사서에서 마조선사 및 그 제자들과 관련된 기연어구를 뽑아냄으로써, 중국 선종사에서의 선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하였다. 원문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하고 상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마조도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592쪽/값 28,000원



불면증,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길어 올린, 불면증의 실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다!

"갑자기 잠이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약들 다 버렸습니다." (-치유 후기 중에서)

김명주 지음/신국판/304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